

춤바람 난 시청자들... "스걸파"는 활력소

유명 댄스학원 초보자 수업 마감 40~50대도 등록...연령대 다양 '스우파' 댄스팀 노력이 빛낸 결실 PD "시청자들 공감 자아낸 덕분"



여고생 '츄콘' 등의 경쟁을 그리는 엠넷 춤 경연프로그램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가 시청자들을 춤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사진은 출중한 춤 실력으로 화제를 모은 팀 '연살'이 1차 오디션에 치르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엠넷 방송 캡처

'춤 광풍'이 불고 있다. 국내 유명 여성 댄서들의 대결을 그린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에 이어 10대 참가자들을 내세운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스걸파)가 최근 시청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직 시청자에게는 다소 낯선 스트리트·힙합댄스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역설적으로 호기심도 한껏 키운다. 출연 댄서들이 각종 예능프로그램을 휩쓰는 데 이어 '스우파'와 '스걸파'의 인기에 힘입어 춤을 배우려는 초보자들도 대폭 늘어나 열기를 달구고 있다.

● "입문만 완판·연령대 다양화"

방영 중인 '스걸파'에서는 10대 여고생들이 경쟁하고 있다. YGX, 라치카, 윌트, 웨이비, 코카앤버터, 프라우드먼, 홀리뱅, 흑 등 '스우파'의 8개 댄스팀이 심사위원과 멘토로 나선다.

한발 앞서 인기를 견인한 '스우파'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분위기다. 방영 3회 만인 14일 화제성 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12월 2주차(6~12일) TV화제성 비드라마 차트 1위에 올랐다. 블링걸즈, 아마존, 클루씨 등 참가팀들도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끌고 있다.

유명 댄서들과 고교생들의 춤 경연을 본 시청자들은 댄스학원으로 몰려가고 있다. 15일 서울 노원구에 사는 회사원 신혜원(32)씨는 "'스우파'로 춤 영상을 보기 시작해 '스걸파'를 통해 용기를 얻어 남편과 함께 댄스학원에 등록했다"면서 "춤이 어렵지만 활력소가 된다"고 밝혔다.

춤에 관심을 보이는 연령층도 폭넓다. 서울 성동구 원말리언 댄스스튜디오의 이장석 매니저는 "'스우파' 이후 초보자 수업이 빠르게 마감되는 추세"라면서 "40~50대 수강생도 등록할 만큼 연령

대가 눈에 띄게 넓어졌다. '스우파' 시리즈의 영향을 실감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스우파' 우승팀 홀리뱅의 온라인 수업을 연 클래스101 측도 "50대 어머니와 함께 수강해도 괜찮은지 등 폭넓은 연령대의 문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경연 소재에 댄서 노력 비춘 효과"

최근의 흐름은 모니카(프라우드먼), 효진초이(윌트) 등 '스우파' 댄서들의 노력이 빛어낸 성과라는 시각이 크다. 댄서들은 "댄스를 대중적으로 알리겠다"는 목표로 '스우파'에 이어 '스걸파'에 참여

했다. 이들은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무대 위에서 댄스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작진은 기존 경연 소재에 춤에 관한 지식을 녹이는 데에 집중했다. '스걸파'의 연출자 김나연 PD는 "오랫동안 쌓인 여성 댄서들의 춤과 인생 이야기가 시청자 공감을 자아낸 덕분"이라며 화제 요인을 분석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에 흥을 다시 돋우는 역할도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황찬성 "예비신부 새 생명 축복"...내년 초 결혼



황찬성

그룹 2PM 멤버 황찬성(31)이 결혼과 예비신부의 임신 소식을 전했다. 황찬성은 SNS에 "오랫동안 교제해온 사람이 있다"면서 "군 전역 이후 결혼을 준비하고 계획하던 중 예상보다 빠르게 새 생명의 축복이 내렸고, 이르면 내년 초 결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신부는 비연예인이며, 현재 임신 초기로 알려졌다. 또 그는 "15년간 몸담은 JYP엔터테인먼트와 내년 1월 계약 만료"된다고 덧붙였다. 2008년 2PM으로 데뷔한 황찬성은 가수과 연기자 활동을 병행해왔다. 현재 방영 중인 채널A 드라마 '쇼윈도:여왕의 집'에 출연 중이다.

BTS,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1위 최다 신기록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가장 많이 1위에 오른 가수가 됐다. 15일 빌보드 발표된 최신 차트(12월 18일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5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버터'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버터'로 18번째 1위에 오른 해당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은 통산 46번째 정상을 차지해 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글로벌 200' 차트에는 '버터' 25위, '마이 유니버스' 29위, '다이너마이트' 53위, '퍼미션 투 댄스' 81위 등 4곡을 순위에 올렸다.

임영웅 '별빛 같은...' 지니뮤직 올해의 노래



임영웅

가수 임영웅의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이 음원사이트 지니뮤직에서 올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올해의 노래'에 선정됐다. 15일 지니뮤직이 발표한 목록에 따르면 2위는 아이유의 '셀러브리티'가 올랐다. 3위와 4위에는 방탄소년단의 '버터'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 랭크됐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부른 '피치스'(Peaches)는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의 앨범'에는 3월 발매된 아이유의 정규 5집 '라일락'이 올랐다. 인기 순위를 집계하는 지니 차트에서 1위를 가장 많이 한 노래는 아이유의 '셀러브리티'로 꼽혔다.

네이버,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와 업무협약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5일 음레협은 "네이버의 음원 플랫폼 바이브가 도입한 음원전송사용료의 이용자별 정산 분배 방식의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이브는 지난해 5월 음원 전송시 저작권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사에 지급하는 음원 사용료를 각 이용자의 사용 내역에 따라 구분해 이용자가 실제로 들은 곡의 가수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외 음원사이트들은 매월 총매출을 전체 재생수로 나눠 특정 음원 재생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사용료를 배분하는 비례배분제로 운영 중이다.

롯데시네마 '매트릭스: 리저렉션' NFT 굿즈 낸다

롯데시네마가 22일 영화 '매트릭스: 리저렉션' 개봉에 맞춰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기술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굿즈(MD상품)를 선보인다. 영화업계에서는 최초로, 15일 롯데시네마는 "영화의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는 워너브라더스, NFT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위치크래프트와 협업해 NFT 굿즈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영화 속 주요 상징 요소와 캐릭터들을 3D로 구현해 입체감을 붙여넣고, NFT 요소 전시와 감상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별도로 구성했다.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

2021년 닫는 '하이브', 2022년 여는 'SM'

하이브 소속 가수들 31일 콘서트 SM은 새해 첫 날 온라인 라이브

'케이(K)팝 제국'의 대규모 무대가 펼쳐진다. 케이팝을 대표하는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와 하이브가 각각 소속 가수들이 한 무대에 서는 공연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화려하게 맞는다. SM은 그룹 엑소·레드벨벳·NCT·에스파 등을 내세운다. 하이브에서는 그룹 엔하이픈·프로미스나인·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수 이현 등이 무대에 선다.

하이브는 31일 밤 9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콘서트 '2022 위버스 콘 [뉴 에라]'(2022 Weverse Con [New Era])를 연다. 소속 가수들과 팬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순간

을 함께하는 글로벌 음악축제이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플레디스, 썬스뮤직, 빌리프랩 등 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다만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콘서트를 마친 뒤 장기 휴가를 받은 '간판스타' 방탄소년단은 출연하지 않는다. 전 세계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짧게나마 동영상 등을 통해 인사할 예정이다. 하이브 아메리카의 SB 프로젝트 소속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도 비대면으로 한국 팬들을 만난다.

하이브는 15일 "음악과 토크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구성에 5개의 멀티 스테이지 및 라이브 밴드와 함께하는 특별무대이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스페셜 한정 무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새해 첫 날 브랜드 공



하이브 '2022 위버스 콘 [뉴에라]'

연인 'SM타운 라이브'를 온라인으로 전 세계 무료 공개한다.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부터 각종 SNS를 통해 'SM타운 라이

브 2022:SMCU 익스프레스@팡야(SM TOWN LIVE 2022:SMCU EXPRESS@KWANGYA)'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 팬들을 만난다. 가상공간 'SMCU 익스프레스 스테이션'을 배경으로 소속 가수들이 새해맞이 라이브 무대를 펼친다.

이에 앞서 27일 겨울 음반 '2021 윈터 S메타운:SMCU 익스프레스'(2021 Winter SMTOWN: SMCU EXPRESS)도 발표한다.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각 팀별 또는 다채로운 멤버들이 조합을 이뤘다.

SM과 하이브 등은 지난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증강현실(AR)과 3차원(3D) 그래픽 등 최첨단 기술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올해에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확대해 두 배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감염병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온라인으로만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고민 중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D.P.' '술도녀'도 제작 확정...대세가 된 시즌제

전세계 신드롬 '오겜'도 시즌2 선언 인기있는 K 콘텐츠 OTT 입지 강화

'D.P.'와 '술꾼도시여자들'이 새롭게 돌아온다. 올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티빙을 통해 각각 선보여 화제를 모은 뒤 시즌2의 새로운 이야기를 펼친다. 시즌제 해외 콘텐츠가 글로벌 OTT에 자리 잡은 데 이어 한국도 본격적으로 동참한다.

티빙은 15일 오리지널 시리즈 '술꾼도시여자들'(술도녀)의 "시즌2를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종영과 동시에 이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시즌1의 29살 세 여자 이선민·한신화·정은지가 술과 술자리를 매개 삼아 현실 속 각종 상황을 이야기해 큰 공감을 얻

었다. 넷플릭스도 14일 오리지널 시리즈 'D.P.'의 시즌2 제작을 공식화했다. 올해 8월 전세계에 동시 공개된 작품으로, 정해인·구교환이 탈영병 추적에 나선 육군 헌병대 군무이탈 체포조(Deserter Pursuit)의 이야기를 그렸다. 군부대에서 벌어지는 갖은 부조리를 고발했다.

이처럼 각 OTT는 한국 콘텐츠의 시즌제 본격 제작에 들어섰다. 전 세계적 신드롬을 모은 '오징어게임'도 시즌2 제작을 선언했다. 쿠팡플레이도 'SNL 코리아'의 시즌2를 25일 선보인다. 모두 시즌1에 대한 국내외 호평에 힘입은 움직임이다.

'술도녀'의 경우 유튜브 클럽 영상 조회수가 6000만뷰를 넘어섰다. 또 10월22일 선보인 뒤 3주차 1034%, 4주차 3439%, 5주



D.P.

차 3585% 등 티빙의 유료 가입자를 크게 늘려주었다. 쿠팡플레이가 월 활성이용자를 각각 전월 대비 9월과 10월 29.4%와 14.6% 늘린 데에도 'SNL 코리아'의 공이 컸다. 'D.P.'는 미국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로부터 '올해 최고의 해외 TV시리즈'로 꼽혔다.

'오징어게임'으로 대표되는, '케이(K) 콘텐츠'의 전 세계적 관심이 OTT 플랫폼에 기댄 것이기도 해 각 OTT는 이미 호평 받은 한국 콘텐츠를 시즌제로 제작해 국내외



술꾼도시여자들

이용자들의 시선을 묶어두겠다는 전략이다. 세계시장에서 플랫폼 강자의 위상을 굳히겠다는 시도이다.

연기자들의 기대감도 크다. 'D.P.'의 정해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군에서 스스로 돌이켜보며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라며 "시즌1에서 일병 계급장을 달아 후임들과 겪는 에피소드"를 기대했고, "시즌3에선 상병, 시즌4에선 전역을 앞둔 캐릭터"를 내다봤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